

너희는이렇게기도하라

(마6:9-13)

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큰 원리는 1절, ‘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 하느니라’ 입니다. 그 구체적인 3 가지 예인 구제, 기도, 금식(경건)을 들어 다시 이 원리를 강조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 3 가지 예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입니다. 구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에 두 가지로 5-8절에 말씀하십니다. 하나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갚지 아니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는 기도입니다.

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두 가지 기도 부정적인 기도와 긍정적인 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것이 9-13절의 내용입니다.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은 성도들의 삶과 깊은 관계들을 가집니다. 사람들이 언제 가장 위대해 집니까?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. 아무 하나님이 아닙니다.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신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.

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골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를 보여 줍니다. 그리고 제자들 뿐 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골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에 기도를 위하여 이 기도의 골격들을 적용 확장시키면 됩니다.

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묵상하고 입을 가리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절, ‘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’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땅 위가 아니고 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’ 입니다. 이 땅에 속한 아버지가 아닌,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. 기도시작 전에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